

늦여름 달구는 음원 강자들 컴백

감미로운 발라드 vs 푹 쏘는 서머 송...뭘 듣지?

민고 듣는 김동률, 신곡 '여름의 끝자락' 선배 브라운아이드소울도 4년 만에 새 앨범 내내 서머 퀸 레드벨벳·청하·선미도 잇달아 신곡

막바지 여름 가요계가 가을을 기다리는 '발라드 황제'들과 여름이 가는 걸 아쉬워하는 '서머 퀸'들의 경쟁으로 후끈해진다.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민고 듣는' 발라드 가수들과 '보는 재미'까지 안겨주는 걸그룹들이 잇따라 컴백해 대결한다. 특히 최근 드라마 '호텔 델루나' OST의 선전으로 예년처럼 '서머 송'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마다 '음원 강자'의 타이틀로 누가 먼저 이를 제치고 정상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별다른 방송 활동을 하지 않아도 탄탄한 팬덤을 확보한 가수 김동률이 돌아왔다. 20일 오후 8개월 만에 발표한 신곡 '여름의 끝자락'은 '김동률표 발라드'다. 중저음의 목소리와 담담하게 읊조리는 창법이 곡 제목처럼 여름의 끝자락과 잘 어울린다.

김동률은 곡 작업을 하면서 이십년지기 친구이자 피아니스트인 김정원의 연주를 염두에 두었다. 두 사람의



김동률

청하

협업은 2004년 발표한 '청원' 이후 15년 만이다.

목소리만으로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는 보컬 그룹 브라운아이드소울(정엽·나일·영준·성훈)의 귀환도 반갑다. 이들은 그동안 각기 솔로 활동에 집중해오다 4년 만인 9월2일 새 앨범을 발표하며 완전체로 뭉친다. 이들 역시 방송 활동을 하지 않는 만큼 신곡을 내고 투어에 나선다. 10월5일과 6일 서울 연세대 노천극장을 시

작으로 대구, 부산에서 콘서트 '잇소울라잇'을 펼친다. '솔(soul) 강자'답게 '솔은 옳다'는 의미를 담아 멤버들이 공연 제목을 지었고, 콘서트 포스터도 나일이 디자인했다. 소속사 톱플레이뮤직 고기호 이사는 20일 "2015년 4집 이후 오랜만의 신곡을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머 퀸'들의 자존심을 내건 경쟁도 볼 만하다. 레드벨벳과 청하, 선미가 주인공이다. 해마다 여름에 활동하며 좋은 성적을 거둔 이들이만큼 기대를 모은다.

6월19일 '짐살라빔'을 발표하고 활동을 펼친 레드벨벳은 2개월 만에 '스파클링 서머 송'을 21일 선보인다. 제목에서부터 '늦더위에 시원한 청량지수를 높이겠다'는 포부가 엿보인다.

가수 청하는 남성 솔로가수 그리즐리와 손잡고 컬래버레이션 곡 '린'을 22일 발표한다. 청하의 섹시하고 청량한 매력과 그리즐리의 감성을 버무려 팔자락에 서 있는 무더위를 신스팝멜로디로 시원하게 식혀준다.

여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선미 역시 같은 날 신곡 '날라리'를 내놓는다. '가시나' '주인공' '사이렌' 등을 잇달아 히트시킨 그녀는 이번 곡을 통해 4연속 흥행에도 도전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4

BTS, 美 MTV 어워드 5개 부문 후보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 5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20일 (한국시간) '2019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 측은 공식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수상 부문과 후보를 발표했다. 방탄소년단이 후보로 오른 부문은 '베스트 그룹(Best Group)'을 포함해 '베스트 케이팝(Best K-Pop)', '베스트 콜라보레이션(Best Collaboration)', '베스트 안무(Best Choreography)', '베스트 아트 디렉션(Best Art Direction)'이다. 시상식은 26일 미국 뉴저지 푸르덴셜센터에서 열린다.

채널A "오세연 마지막 회 함께 봐요"



연기자 박하선과 이상엽이 주연한 채널A 금토드라마 '평일 오후 세시의 연인'(오세연)이 팬들과 함께 마지막 회를 보는 이벤트를 연다. 채널A는 20일 "시청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두 주인공과 마지막 회를 함께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24일 밤 10시 서울 여의도CGV에서 '박하선, 이상엽과 함께 하는 오세연 데이'를 연다"고 밝혔다. 23일 오전 9시까지 채널A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DM으로 명대사와 '단체 관람'에 참여하고 싶은 이유, 참석 희망 인원, 개인 정보 등을 보내면 된다. 1인 최대 2매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JYP, 트와이스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걸그룹 트와이스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가 나온다. 20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유튜브와 손잡고 트와이스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밝혔다. 2015년 데뷔 이후 4년 동안 성장해온 모습, 올해 월드투어 현장과 멤버들의 깊이 있는 인터뷰를 중심으로 꾸민다. JYP는 "국내 걸그룹이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 주인공이 된 것은 처음"이라며 "아홉 멤버가 털어놓은 이면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 공개된다.

롯데시네마, 개관 20주년 영화 기획전

롯데시네마가 개관 20주년을 맞아 영화 기획전을 마련했다. 1999년부터 2018년 사이 개봉한작 중 다시 보고 싶은 영화 다섯 편을 선별해 상영하는 '스무살 롯데의 인생영화' 기획전이다. 9월1~10일 전국 롯데시네마 60여개 영화관에서 진행되는 기획전은 허진호 감독의 '봄날은 간다',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과 '설국열차' 그리고 리처드 커티스 감독의 '어바웃 타임', 존 카니 감독의 '비긴 어게인' 등을 상영한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예능 섭외 0순위'로 거듭난 설민석·서경덕

설민석 대표 '선남녀' 등 역사 예능 강자로 한국 알리미 서경덕 교수도 대중들과 소통

역사 강사 설민석 단품교육 대표와 '한국 알리미'를 자처하는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예능프로그램의 '섭외 0순위'로 각광 받고 있다. 차분한 해설과 감성에 닿는 호소력을 강점 삼아 시청자에 역사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설민석 대표는 최근 역사를 소재로 한 예능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 중이다. 전국 곳곳을 둘러보며 역사를 되짚어가는 MBC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선남녀)와 태극기함을 만드는 팬딩을 벌인 '같이팬딩'이다. 설 대표는 독특한 말투로 조리 있게 강의를 펼치는 덕분에 '역사 예능'의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각종 캠페인 활동으로 해외에 한국을 알려 온 서경덕 교수도 마찬가지다. 최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방송인 유재석·조세호와 일본 강제노역 피해자를 만났다. KBS 1TV '아침마당'을 비롯한 여러 프로그램에서 독도에 관한 강의를 한다. 이는 2005년 미국 뉴욕타임스에 독도 광고를 내는 등 오랫동안 역사 관련 활동을 펼쳐온 경험이 그 바탕이 되고 있다.

각종 예능프로그램을 흥행무진하는 이들의 인기는 당분간 식지 않을 전망이다. 각 방송사가 올해 3·1운동 및



설민석 대표

서경덕 교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역사 관련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 중인 데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해 반일정서가 확산 중인 상황도 반영된다. 이에 따라 예능프로그램 제작진은 다투어 이들의 일정을 묻는 등 '섭외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중과 소통하려는 두 사람의 의욕도 높다. 설민석은 '선남녀'를 통해 "예능프로그램은 아주 친근하고 대중적으로 시청자에게 접근하기 좋은 공간"이라며 "'역사 선생님'으로서 시청자와 더 소통하고 싶다"고 밝혔다. 서경덕도 유튜브 등 각종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 대중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양현석 '출국금지' 조치...다음주 공개 소환 검토

경찰, 원정도박 자금 입출금 내역 분석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50)이 출국금지를 당했다.

20일 서울지방경찰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상습도박 혐의로 입건된 양현석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해 승인 받았다. 경찰은 범죄의 수사를 위해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양현석이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현석과 함께 원정도박 혐의로 입건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는 3월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미 피의자 신분이 되면서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양현석

경찰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 사옥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금 입출금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양현석과 승리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하기 위해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경찰은 회삿돈을 횡령해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자금 흐름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계좌 흐름과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 중 양현석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그를 포도라인 등에 서게 하는 등 공개 소환도 검토하고 있다.

이정연 기자



로맨스 여신 남시오 연기자 김소현이 20일 서울 동대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좋아하면 울리는'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민정 기자 marineboy@donga.com